



## 용틀임하는 중국 지금이 바로 한·중 협력의 적기이다

홍 성 태 · 서울대의대 기생충학교실

**19**96년 5월 13일 맑은 날 아침 9시 국제선 제2층 사 로비에 임한중 건협 회장, 박기준 복지부 보건정책과장, 필자, 조재현 건협 조사연구부 차장이 출국차 모였다. 정시에 출발한 비행기는 국내선 수준의 짧은 비행시간(1시간 50분)으로 북경 공항에 우리를 내려 주었다.

간단하게 차를 한잔 마시고 북경 시내에 있는 중국 예방의학과학원을 찾아갔다. 우리 일행을 쩡이(曾毅, Zeng Yi)원장, 왕계안(王克安, Wang Ke An) 부원장이 환대해 주었다. 이 과학원에는 모두 8개의 연

구소가 있는데 7개는 북경에 있고 하나가 상해에 있다. 상해에 있는 것이 기생충병연구소로, 아마 기생충병 연구소 단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소일 것이다. 연구원 건물은 행정동 만도 8층으로 제법 크고, 안의 전산실을 둘러 보았는데 전산망을 갖추고 누리그물집(internet home page)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었다.

쨍 원장은 중국산 속에서 추출하여 성공한 항말라리아 약인 artemisinin 개발에 관하여 크게 자랑했고, 그 주역인 약리학실장이 쨍 원장의 부인이라고 역시 자랑스럽게 설명하

였다. 지금은 AIDS 치료제를 연구 중에 있는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제품화 과정에 우리 나라와 협력이 가능한지 타진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프라지판텔과 천진에 시공 중인 신제품약 공장을 설명하고 향후 임상시험에 관한 과학원 차원의 협조를 구하였다. 신품의 장사장은 사업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이어서 우리 일행을 감동시켰다.

오후에 잠시 틈을 내어 북경이 초행인 필자와 조차장을 위하여 자금성(紫金城), 미술관을 관광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저녁에는 미리 약속한 대로 북경 로얄식당에 가서 저녁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과학원 원장, 부원장과 보건부 관리와 쑤수휘(徐淑惠 Xu Shu Hui)연구원, 취양고(邱元高, Qiu Yuangao) 국제합작사 주인이 함께 자리했다. 식사 중에 무희들의 전통 가무가 곁들여져 고급식당임을 과시했다. 고급요리와 중국의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는데 이날 먹은 음식은 우리에게서 일주일 고행의 서막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필자와 조차장은 일찍 안내자와 함께 만리장성 관광에 나섰다. 임한중 회장과 박기준 과장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사를 만나 한·중 기생충 관리 협력 사업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고 대사관 직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대사와 관계 관리가 이해를 매우 잘해주어 성공적인 만남이었다고 두 분이 만족해 하셨다. 우리 협력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는 데, 요지는 지금이 중국과 기생충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적기라는 것이었다.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아직은 외부의 자금이 필요하고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하여 국제협력 차원으로 일정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과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이며, 지금 우리의 외교방침이 중국과 협력을 늘이는 것이니, NGO를 통한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비용, 효율면에서나 생색면에서나 아주 적합하다고 할 만하다. 우

리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실제로 대사관이나 의무부를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다.

오전에 헤어진 일행이 오후에 호텔에서 다시 합쳐져 북경 공항으로 가서 남경행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 도착하니 밤 9시, 현지 관계자인 계지화(葛繼華, Ge Jihua) 안휘성연구소

를 방문했다. 총 58명의 직원이 있었고 본관이 4층으로 비교적 큰 건물이었다. 옆에 새로 병동을 짓고 있었는데 외래와 입원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시범사업 대상지 두 군데에 관하여 부시장과 소장이 설명했다. 두 시범부락은 치후구



▲ 안휘성 기생충병방치연구소 방문

장, 우웨이도(吳維鐸, Wu Weiduo)부소장, 진싱원(秦形運, Qin Xing Yuan)부소장, 구진도(郭昆多, Guo Jin Do)연구원 등이 영접했다. 밤 10시가 지나서야 마안산(馬鞍山)시의 우산후(雨山湖) 호텔에 도착하여 투숙하였는데 상해연구소 펑정(馮正, Feng Zheng) 소장, 쉬롱지(許隆基, Xie Long Ji)연구원과 마안산시 부시장, 위생국장, 위생국부국장 등 관계자 4인이 영접했다.

5월 15일, 호텔 식당에서 아침식사로 쌀죽을 먹었는데 중국에서도 죽을 죽이라고 해서 재미있어 했다. 아침 식사에는 죽과 만두가 주로 나왔다.

오전 9시에 마안산시 지방병방치소(馬鞍山市地方病防治所)

(慈湖鄉), 태래촌(太來村)과 우산구(雨山鄉)의 한 촌이 정해졌다고 하였다. 태래촌의 일부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기생충란 양성률을 보면 구충이 약 30% 정도이고 회충이 21%, 편충이 9%, 요충이 화령전 어린이에서 30% 정도 있다고 했다. 주혈흡충은 없다고 했다. 나오다가 임회장께서 연구소장의 부탁을 받고 “韓中協力”이라는 휘호를 멋지게 쓰시고 박수를 받았다.

우리 팀은 태래촌을 방문하여 발농사 현장과 촌사무소, 보건진료소를 둘러보았다. 이 마을은 7개 마을에 13,800명이 사는 촌이며 초등학교 하나가 있다. 밭에 인분을 뿌려 농사를 지으며 호박, 감자, 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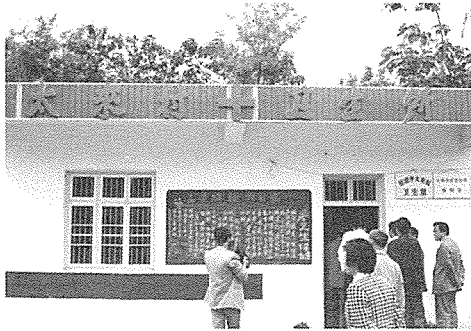
토마토 등을 키우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우리 나라 70년대 초반의 농촌을 연상케 했다.

일인당 연평균 소득이 \$200 정도로 같은 구의 다른 마을보다는 나은 수준이라 한다. 밭에 비닐하우스가 많고, 밭 구석에 인분 구덩이가 있어 거름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곳곳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변소와 연결되어 있고 더러워 보였다. 연못에서 낚시도 하고 빨래, 설거지, 아이 목욕을 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보건진료소에는 의사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이 있고 환자는 없었다. 중국산 알벤다졸이 있었는데 한 알(200mg)이 1엔이었다.

이 농촌 마을은 일대가 모두 그렇듯이 산이 전혀 없는 들판으로 논도 없고 밭농사만 지으며, 온통 주변이 유채밭이었다. 태래촌만 특용작물같이 야채를 키우는 것으로 보였다. 날씨가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 있다가 멈추었다. 촌장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이 반겨주었고 가는 곳마다 “熱烈 歡迎 韓國人 保健 専門家 訪問”이라는 현수막을 빨간 천에 써서 내걸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어서 50병상 규모의 雨山區立醫院을 방문하여 원장의 안내를 받았다. 내과, 소화기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의 진료과가 있고, 한약과 양약 조제실이 있었다. 여기에는 각기 다른 약사가 한 사람씩 있어 조제하는데, 한약은 일주일



▲ 안휘성 마안산시 태래촌 위생소

에 한 번 한의사가 와서 처방한다고 한다. 환자가 직원보다 적었는데 입원 중인 환자가 3명, 외래 환자가 1명 있었다. 하루 입원비가 3원이라고 한다. 검사실은 정말 빈약했고 투시가 되는 방사선 기계가 하나 있었다. 아주 초보적인 병원의 형태를 갖추었다.

우산후호텔에서 마안산시 위생국장이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개구리탕과 장어구이가 있었고 그외에 여러 종류의 요리가 나왔는데 재료가 무엇이든 기본 양념과 맛이 비슷했다. 특히 박과장께서 입맛을 다시기만 하셨다.

한편, 마안산시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제철공장이 있는데, 이 도시의 경제력은 제철공장과 직결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작은 지방도시이지만 시가지에 큰 백화점이 여럿 보였다.

두 시간 정도 평지를 달려 우후(蕪湖)시를 지나고 나니 산과 논이 나타나 우리 나라의 농촌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가는 동안 내내 길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도중에 보이는 집들이 허름하고 공사중인 집도 많았다.

저녁이 다 되어 산에 도착하

여 주화산 동아호텔(東崖賓館, Dong Ya Hotel)에 묵었다. 평정 소장과 안휘성 연구소장과 연구원, 칭양현(昌陽縣) 주혈흡충관리소장이 와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임회장이 저녁을 사셨다. 이날도 개구리탕, 비둘기탕, 자라탕, 도어(刀魚)탕이 나와 우리는 겨우겨우 배를 채웠다. 우리가 못 먹은 만큼 중국 분들이 더 즐겼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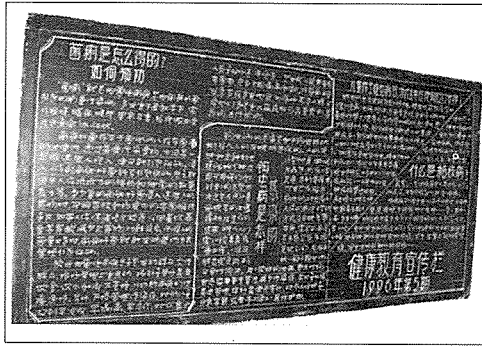
16일 오후 1시 20분에 호텔을 출발하여 우후시(蕪湖市) 안휘성 연구소(安徽省 血吸蟲病, 寄生蟲病防治研究所)에 도착했다. 연구소를 둘러보고 연구소의 현황과 기생충 감염상을 소개받았다. 1955년에 처음 설립하였고 지금 건물은 1984년에 지었다. 우후시는 안휘성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연구소는 시 중심에 있다. 부지 면적 8,000㎡에 건물 3동이 있는데, 연구소 본관, 연수원, 직원 아파트로 되어 있다. 직원은 총 66명이고 기술직이 56명이다. 부서로는 기생충병과, 주혈흡충병과, 주혈흡충방치과, 연수교육과가 있고 소장 1인, 부소장 2인이 있다.

안휘성 전체의 기생충 감염과 주혈흡충 감염을 관리하고, 중국 전체의 주혈흡충 관리요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보통 교육은 1주~1개월동안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20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3,000명을 교육시켰다. 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50명을 국내의 다른 기관에서 교육시킨 바 있고 1995년부터는

한국과 교류하여 이 연구소 연구원 4명이 서울을 방문했다. 소장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공적인 기생충관리 사업에 감명받았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의 장내 기생충 감염에 관하여 보고 받았는데, 원충 8종, 선충 9종, 흡충 8종, 조충 2종이 있다고 했다. 전체 총리양성률이 68%이고 이질아메바가 0.9% 정도이다. 일부러 표본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별로 약간 다른데, 회충 38~63%, 구충 27~36%, 편충 12~27%, 요충 18~26%, 동양모양선충 0.06~0.3%, 분선충 0.01~0.4%, *Oesophagostomum apio-stomum*이 소수 있다고 한다. *Echinochasmus perfoliatus*, *E. liliputanus*, *E. japonicus*가 있고 양성률 12%인 마을이 있다고 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기생충 중에서는 구충 감염이 가장 문제로 보인다.

안휘성은 남북으로 긴 모양인데, 위로는 황하, 중간에 양자강이 서에서 동으로 지나간다. 황하의 북부가 기생충 감염이 가장 많고 그 곳에 간흡충과 주혈흡충이 있다. 이 연구소의 연수동에는 에어콘이 있는 2인용 방이 40개 있고 큰 식당이 있다. 이 곳 연구원 중에 류샤밍(劉曉明, Liu Xiao Ming, 女)이 *Helminthological Abstracts*에 난 자기 논문을 보여주며 도와 달라고 했다. 그는 30대 후반의 아주머니로 간흡충의 혈청학적인 진단으로 IEST와 IFA의 성적을 비교하는 논문을 중국기생충학잡지에



▲ 안휘성 마안산시 우산구립의원의 건강교육 안내 첩판

1993년에 발표했다. 지금은 연구비가 없어 주혈흡충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수동의 귀빈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예쁜 소저(小姐) 두 명이 빨간 옷을 입고 미소지며 정성껏 시중을 들었다.

다음날 6시에 호텔을 나서 남경 공항에 도착하였다. 비행기가 정시보다도 빨리 이륙하여 난창(南昌) 공항에 도착하니 강서성(江西省) 시치민(謝治民) 위생부국장과 장소기(張紹基) 주혈흡충증관리소장이 마중 나와 반겨 주었다. 난창시는 성도로 제법 크고 인구가 130만명이라는데 도심이 깨끗하였다. 그러나 역시 공사장은 많았다. 시내에 있는 청산후(青山湖) 호텔에서 잠시 쉬었는데 성정부에서 교섭해 두어서인지 30여분 쉬는데 객실을 내 주었다.

식후에 난창시를 출발하여 류창시 일선 마을로 이동하였다. 차안에 여자 연구원 린단단(林丹丹)이 동승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 뉴욕에서 작년에 일년간 공부했다 한다. 그녀는 이 연구소의 공식 통역이었다. 가는 길목에

양어장이 많아 잠시 내려서 둘러 보니 연못의 바닥에 두 종류의 달팽이가 가득하였다. 임회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다. 류창시 관천구 장춘촌(瑞昌市 苑鎮區 長春) 마을을 방문하니 촌장이 설명하고 마을을 안내하여 민가와 개천을 둘러 보았다.

이 촌의 인구는 14,000명이고 물소가 수백 두 있다. 마을이 전체적으로 더럽고 환경이 원시적이었다. 집 뒤에 돼지우리가 붙어 있고 그 앞에 펌프가 있어 물을 공급한다. 마을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려나와 구경하였다. 어린이들이 공기들을 갖고 놀고 있는데 우리네 모습과 똑 같았다. 이 마을은 주혈흡충 유행지역이고 관개수로가 집 뒤로 흐르고 있으며 모내기 한창이고 아직 유체가 남아있는 논도 있었다. 모내기하는 논 풍경과 개울 경치가 우리 나라의 것과 비슷하여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수로에서도 주혈흡충의 중간숙주는 아닌 패류가 바닥을 덮고 있었다.

마을에서 시내로 돌아가 류창시(瑞昌市) 위생국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보고 받고 차 선물을 받았다. 우선 우리에게 보고용으로 5개 마을을 택하여 210명을 대상으로 대변을 검사하였는데 (1995.12~1996. 2), 주혈흡충 10.5%, 회충 25.2%, 구충(7.1%), 간흡충 2.9%, 간질 1.9%, 편충 1.0%, 람블편모충 1.0%이었다. 물어 보니 채변이나 채혈이 비교적 쉽다고 한다. 72